

‘내수시장 침체’ 7년 연속 경제 불안요소 1위 차지

도내 경제전문가들은 2016년 도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침체 해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회복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내수시장과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경기회복 대기근 합동”
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100명 가운데 57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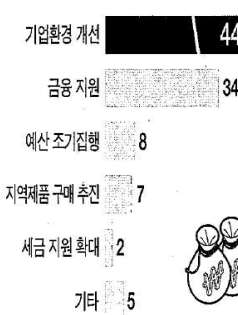
지난 7년간 조사에서는 글로벌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만 1%대를 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경기침체를 잘 넘겼다고 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4%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3%를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불안요소로 내수시장침체(41%), 세계경제의 침체(33%), 금융시장 불안(16%) 등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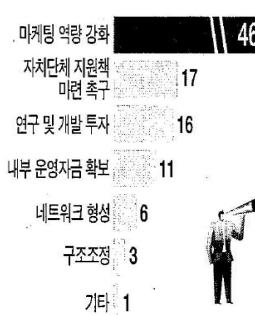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언제쯤 호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2018년 이후가 45%에 달해 우리 경제가 단기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상황이라고 답한 전문가

강원경제 활성화 정책(%)



도내 업체 할 일(%)



강원경제 발전 위해 할 일(%)



강원경제 영향력 집단(%)



응답자 절반 “올해 성장률 2% - 2018년 이후 경제상황 호전”

세계경제 동반 부침 등 악재에 단기간 경기 회복 어려울 전망

는 4%에 그쳤으며 2017년으로 본다는 답변도 36% 나왔다.

■ 지역경제 불안 요소 ‘내수시장 침체’
전문가들은 올해 강원경제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요인(복수응답)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내수시장 침체(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시장 침체는 2009년 이후 매년 지역경제 불안요소 1위 항목으로 선정됐다.

내수시장이 살아나 중소기업은 물

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이러 소비투자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이 각각 16%와 13%를 기록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수단에 대한 질문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이 44%로 가장 높았다.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4%로 집계,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 ‘기업별 마케팅 역량 강화’ 주문

시·군 등 자치단체 도내 경제 미치는 영향력 8년째 1위 지

지난해 조사보다 높아 자금을 겪는 기업이 더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가 46%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도내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 및 지원이 수반돼야 내수침체도 해결되고 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강원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이냐는 질문에 33%가 중대형 기업 유치를 꼽았으며 향후 기업 육성 등 지역수환경제구조 정착도 31%였다.

도에 맞는 관광 및 실버 등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도 23% 나왔다.

■ 자치단체 영향력 8년째 1위
도내 경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도를 비롯해 시·군 등 자치

체가 8년째 1위(60%)에 올랐다. 이는 지역업체 규모가 작고 영세해 공공기관 공사가 물량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지역중소기업이라는 답변은 30%를 차지했다.

도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44%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18%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49%가 중소기업 역량 부족을 꼽아 마케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공정적 답변 6% 늘고 부정적 답변 1% 줄어

지자체·공공기관 지역제품 구매

도내 경제 전문가들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다’(21%),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18%), ‘잘 모르겠다’(13%),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는 좋은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16%,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는 3% 등에 그쳤다. 긍정적 평가가 지난해 19%에서 올해 25%로 높아진 것이다. 반면 부정적 답변은 올해 18%로 전년 보다 1% 줄었다.

지역제품 구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꼽은 이유는 ‘지역 중소기업 역량 부족’(49.2%), ‘구매 담당 직원의 소극적 태도’(26.2%) 등이었다. 하유문기자 few4320@

Taein 건축사·위·재정
태인도시ENC종합건축사사무소

● BUSINESS
건축관계
시안·설계
시공관리
주요업무

● PROJECT
사내·비밀리
시공관리
주요업무

대표전화: 033747-1806 FAX: 033823-4818
원주시 무실동 원주사랑 아파트(로얄타워 3층)

/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참여자 /

- ◇ 교수·연구원(43명) = 김윤식(강원대) 강종원(강원발전연구원) 강주훈(가톨릭관동대) 권종옥(강원대) 김경수(강원대) 김남두(강릉원주대) 김관술(한라대) 김명수(강원대) 김석중(강원발전연구원) 김영식(강릉원주대) 김예슬(강원발전연구원) 김민중(강원발전연구원) 김정원(강원대) 김진기(강원발전연구원) 김태규(한라대) 김현식(한라대) 김형진(강원대) 노승관(강원발전연구원) 노영성(강릉원주대) 박상규(강원대) 박성민(강원대) 박은정(한라대) 박정원(상지대) 배주현(가톨릭관동대) 손병관(강원대) 안관영(상지대) 이규관(상지대) 이영길(강원발전연구원) 이영환(강원대) 이유(강원대) 이종석(한라대) 이충연(한라대) 이현훈(강원대) 임상오(상지대) 임재열(강원대) 전만식(강원발전연구원) 장기문(강원대) 정옥영(가톨릭관동대) 지경태(강원발전연구원) 지해령(강원대) 황규선(강원발전연구원)
- ◇ CEO·단체장(32명) = 김대희(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장) 김영숙(경명산업대표) 김호익(일양대미군 대표) 김철호(대한가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장) 박동연(강원경영자총협회장) 박영식(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 박용성(태백건설산업 대표) 박익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장) 서상진(강원상인연합회장) 엄기현(거희 대표) 오인철(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이문규(프로테크 대표) 이마워(해송KNS 대표) 이봉천(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이상규(강원도자주경제지원사업조합이사장) 이상오(강원도시가지 대표) 이태규(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성(산불식물 대표) 한창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장) 김중환(강원도관광협회장) 조병철(대한시발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장) 차부환(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장) 최금정(커리어 대표) 최돈진(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최성우(강원도건축사회장) 최용(인컴즈 대표) 최중봉(중소기업중앙회 강원연합회장) 하은수(삼척상공회의소 회장) 하중갑(대천상공회의소 회장) 한기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강원지회장) 한은태(한국금형기술 대표)
- ◇ 기관장·공무원(25명) = 강순삼(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고우주(전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김경원(NH농협은행 강원영연본부장) 김명희(신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상철(전 도 전략산업과장) 김선민(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장) 김영배(한국과학기술원 강원연구소 학장) 김안배(한국폴리텍대학춘천점과 학장) 김정일(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백동수(LX한국국도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박연태(금융감독원 춘천사무소장) 박용민(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배재국(한국투자자주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안지환(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 윤시정(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윤신영(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이승남(사회적경제과장) 이철수(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이호준(기술보증기금 춘천지점) 장은병(세미금융고용지원 강원지역본부장) 조안규(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최천서(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한운재(강원지방노동청장) 한중희(강원조정재혁신센터장) 홍성희(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장)



동서산업·이레건설 연탄 배달 봉사 황성 동서산업(주)·이레건설(주) (대표:정대환)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 연말 저소득가구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당 모두 5,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6년 경제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대호 도상공회회소협의회장



지난해는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저성장 과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에서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도민과 상공인 함께 창조 경제 실천할 것”

세태는 밝은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이렇듯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도민과 상공인 모두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과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온 저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SOC 확대가 가치를 경제가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민 모두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 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김정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2016년 한해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내 견고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정책의 실효와 정책 환경의 제감을

“서민경제 안정 역할 현장중심 정책 추진”

정확히 분석해 강원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문제와 애로 해소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현장중심 중기 정책 추진’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목표를 전년대비 2배 이상 조정해 사업 담당자별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오인철 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아보면 2015년은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도내 건설업계 뭉쳐 지역경제 견인해야”

이었음을 입증시켜준 한해였습니다. 새해 경제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최근 모처럼 회복세를 맞이한 주택시장은 금융규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OC예산도 지속 감소해 지역중소업체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유가로 인한 중동의 대형공사발주가 줄어 해외건설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선 지역 건설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합니다.

조완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올해 강원농협은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과 성과를 토대로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 농축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강원농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

협의 정익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별 특성을 잘 활용해 지역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건전 경영과 흑자 결산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과 실의 지원으로 사업에 강한 농·축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협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호 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역내 열악한 창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지역의 창업 열기를 확산해 왔고 관광의 로기농업으로 대변되는 지역 전통산업에 첨단 ICT를 접목시켜 이들 산업이 재도약할

“유망 스타트업 독립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창업과제 도입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등 센터의 창업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발굴한 25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내년에 독립시키고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자 합니다.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플랫폼의 밑그림을 완성 하였습니다.